

리버데일 한의원

한약사 : 임 배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약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a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증제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엔지니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면(스테파노)치과

골라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임플란트(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차원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게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채)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90호

2011, 11, 27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마르코 13, 33-37)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대림 제1주일

ㄱ 입당송

(시편 25(24), 1-3)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대영광송 없음>

ㄱ 제1독서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3, 16ㄷ-17. 19ㄷ; 64, 2ㄴ-7)

16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7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18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34, 2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3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4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6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 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ㄱ 화답송 (시편 80(79), 2ㄱㄷ과 3ㄴ. 15-16. 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구원하소서.

1.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2.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3.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ㄱ 제2독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 3-9)

형제 여러분,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4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6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9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ㄱ 복음 환호송

(시편 85(84), 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ㄱ 복 음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리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1/27 8시	이 윤형	김 철중	김 미수	이 인숙
11시	김 철	윤 광석	윤 기애	김 해란
12/ 4 8시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11시	이 상식	김 형남	김 여경	이 영자

복 사 : 윤 정훈 & 정 무원 최 모세 & 엄 국진
 봉헌자 : 정순조&신흥원 가족 다음주 : 주일학교&민중기 가족
 헌금봉사 : 평화의 모후 Pr 다음주 : 바다의 별 Pr
 운전봉사 : 민 경구 다음주 : 조 영미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부주임신부님(생미사) : 연령 회 봉헌
 문요셉[민영](생미사) : 이엘리자벳[정복] 가족봉헌
 정요나[두화](생미사) : 이엘리자벳[정복] 가족봉헌
 김임마누엘, 김안나(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장수산나[숙환](연미사) : 전패트릭[영달] 가족봉헌
 김야고보[재수](연미사) : 김다니엘[철중] 가족봉헌
 신야고보[준우](연미사) : 황금궁전 Pr, 찬송하올 어머니 Pr
 정의의 거울 Pr, 유다니엘[휴현] 가족봉헌
 김요셉[태기](연미사) : 신베드로[대철] 봉헌
 조상님(연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위령미사 : 바다의 별 Pr, 자비의 모후 Pr 봉헌
 추한준, 이남주(연미사) : 추바오로[성태] 가족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미자 가족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성가 92)
 봉헌 :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가 218)
 성체 : 한 말씀만 하소서 (성가 156)
 파견 :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성가 68)

교회 소식



(1) 대림절 시작

오늘부터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내 자신과 주위를 되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 모두 Christmas Tree(크리스마스트리)를 준비합시다.

(2) 대림절 피정

12월6일(화) - 7일(수) 이틀간 이 창향(세바스찬) 신부님을 모시고
 저녁8시부터 (8:30분 강의) 본당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성탄 준비를 합시다.

(3) 합동 판공성사

합동 판공성사를 12월20일(화) 저녁7시-10시까지 여러 신부님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 성사표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온 가족이
 빠짐없이 성사를 볼수 있도록 성사 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중, 고등부 대림절 피정

본당 중고등부 학생들 대림피정이 12월3일(토)-4일(주일) 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 빈센시오회 소식

우리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저 합니다.

추천 하실 분은 빈센시오 회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부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부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가 오늘(주일) 11시 미사 중에 있고
미사 후 파티가 있습니다. 신부님을 위해기도 부탁드립니다.

(7) 본당 모임

- 울뜨레야 월레모임이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친 교실 에서 있습니다.
- 연령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1시30분) 센타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 2012년 매일미사 구독신청(1년) 을 받습니다. 신청은 12월4일(주일) 까지 성물부 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합시다.
- ♥ 미사 참여시 복장을 단정히 합시다.
- * 이번달(1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12월)은 중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시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향해 먼 길을 마중 나가는 때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운 분을 향해 내면의 여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신앙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의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3,950.00 (추수감사절)

교육헌금 : \$ 2,407.65 2차헌금 : \$ 600.00

교무금 : \$ 1,770.00

한성천(11) 문민영(완납) 강순연(완납) 최숙자(완납)
정철수(완납) 박세복(11) 로병건(완납) 김일규(완납)
현영애(완납) 남로사(완납)

새로운 미사 경본

금년, 2011년 11월 27일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부터 영어판 미사경본이 바뀐다. 미사예절은 그대로이지만, 미사를 드릴 때 사제나, 신자가 바치는 기도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 1960년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라틴어 미사에서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현재 사용되는 영어 미사경본으로 미사를 드려왔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는 본래 드리던 라틴어 미사에 더 가깝고, 성서의 그 뜻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새로 시성된 성인들의 축일과 성찬기도에 기도문이 새로 추가 되었고, 그리고 축일, 특별 미사지향에 따라 현대에 맞게 개정 되었다고 한다. 미사전례가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신자들이 미사참례를 하면서 특별히 다른 점은 미처 못 느끼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해진 기도의 말, 표현이 좀 달라져서 미국성당에 가서 영어미사참례를 하다보면 의아해 질수도 있다. 달라진 기도중에 사제가 The Lord be with you 하시면 신자들은 And also with you 하고 응답 했었는데 이제는 And with your spirit 하고 응답 한다. 이는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디인들에게 보낸 편지(6:18),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4:22)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지기를 빕니다 하신 인사의 말씀을 되새기는 뜻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대 영광송, 감사송, 거룩하시도다 등등 군데군데 기도문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자비 송에서도 사제가 Lord, have mercy 대신 Have mercy on us, O Lord 하시고, 신자들은 For we have sinned against you 라고 응답한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위 빌리브(We believe...)로 시작되는 기도가 아이 빌리브(I believe...), 즉 우리라는 복수에서 일인칭 나 로 고백하다. 우리나라 기도문에는 이미 저는...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에 따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아울러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사에 참례할 때, 기도를 바칠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되이 바치면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공경이 잘 표현되고, 아울러서 믿음이 뒤따른다. 미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사제가 예수님을 대신 해서 미사를 집전하실 때 예수님의 현존과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일치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미사에 참례하면서 기도와 예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제가 드리는 기도예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응답하는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우 몽은